

## 모두 잠든 새벽에 그려나간 동그라미

June 7, 2018 | 전지현 기자

page 1 of 5

##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로니혼 개인전



간간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새벽. 불면증에 시달리는 작가 로니 혼(63)은 어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짝 차는 공간이다.

그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세로 38.1cm, 가로 27.9cm)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초록색,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 수채물감으로 채도와 명도를 달리해 수많은 원을 만들었다. 온전한 동그라미가 선명하기도 하고, 서로 겹쳐 있기도 하다.

그 사이에 문득 떠오르는 단어들을 써넣었다.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 앤 카슨, 시인·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 에드거 앨런 포 등 20세기 북미 문학을 탐닉해온 작가가 쓴 영어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gimcrackery(값싸고 번지르르한 물건, 속보이는 기교)' 'baloney(헛소리)' 등 다소 낯선 단어들이 등장한다. 유년 시절부터 내성적이고 예민했던 로니 혼은 책을 보며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은 에드거 앨런 포 작품에 등장한 단어 'malodorous(악취가 나는)'이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다.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K3에 걸린 드로잉 작품 'Remembered Words(기억 속 단어들)' 시리즈에서 익숙한 영어를 찾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작가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순서나 규칙 없이 나열했다. 그는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문장을 만들지 않고 생각나는 단어들만 쓰겠다고 한다. 동그라미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속 단어들을 쓰는 작업 과정이 명상과 수행 같다. 그렇게 머릿속을 정리하고 집중 노동을 한 후 작가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2012년 그의 목소리를 녹음하러 들어간 스튜디오에서 문득 생각난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한다. 잠재 의식 속 단어들을 자유롭게 끄집어냈지만 사회, 정치, 인종, 문화 등에 대한 단상을 엿볼 수 있다. bogus(가짜), pollute(오염), hallucinogen(환각제) 등이 눈에 띈다.



‘리멤버드 워즈(Remembered Words)-스내글(Snaggle)’

작가는 "이번 드로잉 연작은 자서전적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명상할 때와 같은 상태에서 기억 속 단어를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된 드로잉 연작 15점은 2012~2013년 완성됐다. 9개 드로잉을 가로 3개, 세로 3개씩 배치해 한 작품을 구성한 게 특이하다. 그저 9점이 완전체라고 생각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는 관객의 해석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작품을 잘 설명해주지 않는다.

투명한 물웅덩이를 연상시키는 단색 유리 조각으로 유명하지만 작가는 드로잉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로니 혼은 "드로잉은 작가로서의 삶에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미술 역사에서 폄하되어 왔지만, 드로잉이야말로 그 자체로 심오한 형식이며 다른 장르와도 긴밀히 만난다"고 강조한다.

이번 전시작은 단색 유리 조각 연작, 종이를 잘라 이어 붙인 드로잉 연작 'Hack Wit(해크 위트)' 등 그의 대표작과 연결된다. 매체와 언어의 유연성을 내세워 날씨의 변화 혹은 사물의 변성이 상호 작용하면서 자아내는 유연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1955년 뉴욕에서 여자로 태어난 로니 혼의 외모는 남성 같다. 그는 "성별로 나를 구분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의 장점을 합친 인격체라고 봐달라"고 한다.

그는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을 졸업한 후 예일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2004년), 파리 퐁피두센터(2003년), 런던 테이트모던(2009년)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MoMA), 삼성미술관 리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전시는 30일까지.